

북스

Books

심청은 '강박적 책임감'의 희생양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고전과 출판 연구모임 펴냄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장화와 흥련은 착한 아이다. 너무 착해 핍박을 받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 이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원님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무서운 면이 있다. 귀신이 된 이들에 의해 고을 원님들이 줄줄이 죽어 나갔던 것이다.



짧은 고전연구자들의 모임인 '고전과 출판연구모임'(대표저자 신동훈 건국대 국문과 교수)이 펴낸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는 고전 속 등장인물들의 이면을 파헤친다.

'심청가'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흥보가' '옹고집전' 등 14편의 고전 속 인물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을 괴롭힌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심청은 호녀가 아니라 뒤편지 내가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적 책임감에 시달린 가여운 소녀였다. 그녀는 우리 역사의 대표 호녀지만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런 행동을 프로이트의 '욕망'으로 해석한다. 또 그 욕망 때문에 주변 인물과 갈등을 빚고 괴로워하며, 그 욕망을 이루고 나서야 행복해진다. 심청이를 괴롭힌 것은 강박적 책임감이었다. 15살짜리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위해 섣불리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보다는 눈먼 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강박적 책임감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것이다.

책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내던진 행위에 담긴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다. 인당수에 몸을 던져 다시 태어난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자들과 독립성을 확보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심청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나의 욕망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장화와 흥련의 욕망도 마찬가지다. 이 자매가 착한 아이라는 것은 작가가 씌운 포장일 뿐이다. 그들은 한 번도 계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비의 후처'이며 '간악한 계집'이라 여기고, 마음속에 독을 품은 무서운 아이들이다. '착한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는 고전소설 속 장화와 흥련은 '착한 아이' 강박증에 사로잡혀 놓았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영화 '장화 홍련'의 한 장면.

아이' 강박증이 자매의 비극을 낳았다고 저자들은 진단한다. 자매는 계모를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싫어했지만, 그것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무서운 귀신이 돼 미움과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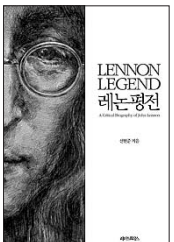
이 밖에 의적 홍길동은 피해 의식으로 딸똥 똥똥 똥똥 방한하였고 분석하는 등 '착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고전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 분석이 흥미롭다. 또 이 책은 단지 고전 속 주인공들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000원>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팝 아티스트 존 레논

삶과 음악 재조명

이제는 전설이 된 팝 아티스트 존 레논(1940~1980년). 대중 음악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있는 신현준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그의 30주기를 맞아 삶과 음악을 재조명한 '레논 평전'을 출간했다.



책은 밖으로는 세상의 부조리와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위선과도 치열하게 싸웠던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치·사회적 문제나 내적 성찰 등을 음악 속에 담아낸 그가 삶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했고 그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했다.

'존 레논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로 시작한 존 레논에 관한 몇 가지 재미로운 상상을 펼쳐놓은 점이 흥미롭다.

<리더스하우스·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리영희 평전...

김삼웅 지음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비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상을 조목조목 짚어낸 평전이 나왔다.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이 자서전 '역정'과 '대화'는 물론 수십권의 저서와 수백 편의 글을 아우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영희론'을 수렴해 정리하고 평한 것이다. 리 교수는 언론계 후배인 김 전 관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가져왔으며 절필을 선언한 이듬해인 2007년부터 주 2회씩 6개월간 150시간에 걸쳐 김 전 관장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평전은 총 15장으로 구성됐다. 리 교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비롯해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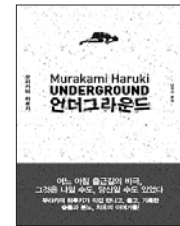


유복한 집안에서의 출생, 서울 유학, 해방과 전쟁 등 청년 리영희 시절, 특종과 필화가 거듭되던 기자 시절, 대학교수로서 더욱 치열한 행동을 나섰던 시절과 나이가 들어서도 '사상의 은사'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던 모습 등 일대기를 다르고 있다. 육군 장교로서 6·25 한국전쟁을 맞아 일선을 누벼야 했고, 4·19혁명 전후에는 기자로서 이승만 독재를 비판한 것은 물론 시위현장에 앞장서서 '1인분의 역할'을 다했던 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또한 유신독재 시절에 자유언론의 필봉을 굽히지 않았으며 보수정당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업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평전에는 그의 가족사와 인간관계 등 개인적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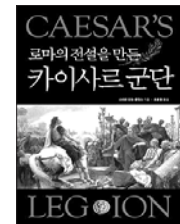
시대의 양심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과 사상

향까지 소상히 담겨있다. 잘 나가는 언론사 기자면서 아버지의 회갑을 차려드리지 못한 결백한 언론인, 대학의 교수로 반이성에 대항하는 글쓰기와 사회운동으로 감옥에 가 그곳에서 어머니 임종 소식을 듣고 감방 식으로 제사를 차리고 목욕야 울어야했던 불효자, 가족에게 소홀했던 아버지, 그리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리 교수는 평전이 완성된 직후인 지난 5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그의 뜻대로 광주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생전에 "공직으로는 반성할 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했던 리 교수, 끊임없이 이상에 저항한 고인의 글과 청렴한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숙연하게 한다. <책보세·2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언더그라운드 1, 2=무라카미 하루키의 히트작 '1Q84' 출발점이 된 소설. 하루키가 올림피아 사건이 발생한 9개월 후인 1996년 1월부터 1년간 60여명의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언더그라운드'의 속편 격인 '약속된 장소에서'는 올림피아 신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엮었다. 본격소설이 아닌 기록 형식을 빌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도식적인 구분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문학동네·1만8000원, 1만2000원>



▲로마의 전설을 만든 카이사르 군단=왜소한 체구(평균 신장 163cm)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로마를 탄생시킨 로마군 이야기이다. 그들은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로마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10군단, 일명 카이사르 군단을 통해 로마군이 어떻게 무적의 군단이 되었는지, 어떻게 모든 전투에서 값진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다른세상·2만4000원>



▲영무용 평론집-문학과 시대현실=1964년 등단해 민족문학론을 위시한 우리 문단의 주요한 문학담론을 기획하고 실천해 온 문학평론가 영무용씨가 15년 만에 내는 평론집. 20세기부터 21세기의 첫 10년까지 한국문학의 지평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출판뿐 아니라 원로 평론가의 섬세하고 자상한 문학 읽기를 통해 문단에 따뜻한 위로와 애정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창비·2만원>



▲노랑=광주 출신 중견시인 오봉욱씨가 13년 만에 내는 시집. '지리산 갈대꽃'과 '붉은산 검은 피' 등의 시집에서 해방 전후의 좌익 활동을 주로 그렸던 시인은 이번에는 60권의 시에서 하나의 주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채롭게 세상을 바라본다. 대부분의 시들이 한미경을 들여다보듯 구체상을 드러낸다. <천년의시작·8000원>



▲오늘의 장르문학=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네 이버 오늘의 문학에 선정된 장르문학 85편 중 판타지, 추리, 호러, SF 등 전 장르에 걸쳐 인기를 끈 작가 10명의 단편을 모았다. 듀나의 '다복', 이영도의 '에소릴의 드래곤', 김탁환의 '실 인간-평화로운 전쟁', 임태운의 '가을반점', 구병모의 '재봉틀 여인' 등 다양한 장르의 대표작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황금가지·1만1000원>



▲잘 자요, 엄마=작가 서미애씨 선보이는 심리 스릴러.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섬뜩하면서도 슬픈 악의 근원을 파고든다. 범 죄심리학자 이선경은 연쇄살인범 이병도가 그녀와 면담하길 원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 하영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노를마인·1만2000원>



▲흥여장수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KBS 역사스페셜 특집으로도 방영돼 주목을 받은 조선 최초의 세계인 문순득의 표류기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서미경 PD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담았다. 표류담 속에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과 이를 안타까워하며 지켜보는 실학자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북스톰·1만3800원>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